재해에 강한 미래를 꿈꾸는 후쿠시마의 “희망 관광 (HOPE TOURISM)”

후쿠시마 (Fukushima) 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지진과 파괴적인 쓰나미, 원전사고 등 여러 가지 재난이 중첩되어 발생한 곳입니다.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탄생한 희망 관광 (Hope Tourism) 은 방문객들을 피해 지역으로 이끌어 각자의 눈과 귀로 직접 재난이 남긴 교훈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행동의 방향을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개인적인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에 있는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Memorial Museum)’ 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에서 북쪽으로 4km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전례 없던 복합자연재해와 연이어 발생한 원전사고의 경험과 교훈을 전 세계와 미래 세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011 년 3 월 재해 당시 9 세였던 박물관 직원 엔도 미쿠 (ENDO Miku) 씨는 기억을 전승하는 “스토리텔러” 중 한 사람입니다. 엔도 씨는 “재난을 직접 겪어 본 사람들이 그 실상을 이야기해야 청취자들 각자가 우리의 경험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도 고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엔도 씨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후쿠시마에서의 경험을 잊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어떤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라고 설명합니다. 전승관은 2020 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20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사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이 전쟁과 자연재해의 잔재 등 인류 비극의 현장을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 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희망 관광” 은 후쿠시마를 둘러보면서 피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견학 투어에 붙인 이름입니다. 2016 년부터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승관도 방문지 중에 하나로 여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재해로 파괴된 지역을 방문하고 후쿠시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일반 언론 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워크숍에 참여하여 재해로부터 얻은 교훈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얻습니다. 주민들은 관람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과정” 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어에서는 오염 제거 작업 중에 수거한 토양의 처리와 인구 유출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위: 현재 전승관이 있는 곳에서 쓰나미의 높이가 4m 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문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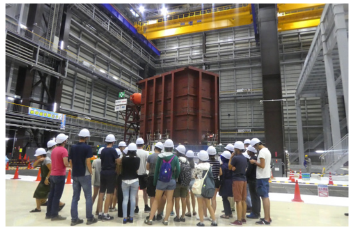
아래: 엔도 미쿠 (ENDO Miku) 씨는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의 직원이자 “스토리텔러” 입니다. 엔도 씨는 다른 스토리텔러보다는 아이들과의 나이 차이가 적기 때문에 재난 이후 태어난 아이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눠 아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후쿠시마대학 국제센터의 윌리엄 맥마이클 (William McMichael) 부교수는 “희망 관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재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후쿠시마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확인하고, 후쿠시마의 회복 탄력성에 희망을 느끼며, 지역을 향한 새로운 애착을 발견하며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를 이해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지역 주민은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라고 설명합니다.

맥마이클 부교수는 2012 년 후쿠시마 앰배서더 (Fukushima Ambassadors)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현보다 한발 앞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앰배서더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후쿠시마에서 10 일간을 보내면서 원전사고의 원인과 복합 재해의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후쿠시마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혁신적인 단기 유학 프로그램으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방문이나 재해 피해 지역 사회에 벚나무 심기 보조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발전해 왔지만, 일차적인 목표는 실제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5 회 진행되었으며, 유학생 200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맥마이클 교수는 “많은 학생이 귀국 후에도 후쿠시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후쿠시마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받은 커다란 충격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지역은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학생들은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목격하고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에서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책임을 다하는데 영감을 얻습니다. 그들이 후쿠시마까지 오게 된 목적은 본질적으로 재해의 참상을 보고 뭔가 배우는 데 있지만 결국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의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후쿠시마의 모습을 알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맥마이클 교수는 현재 희망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반년 후 현에서 열린 일련의 야외록 페스티벌에서 외쳤던 “후쿠시마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입니다. 이 말이 옳다는 듯 후쿠시마에서의 경험으로 교훈을 얻어가는 방문객들의 활동이 현민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이 되어 이들을 격려합니다. 현민도, 방문객도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위 좌측: 캐나다 태생의 맥마이클 부교수가 후쿠시마에 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교수는 일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관계 코디네이터로 후쿠시마에 임명되었으며, 현민들의 따듯한 정과 아름다운 자연에 반했습니다. 맥마이클 부교수는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가 후쿠시마를 오해하게 되어 답답했습니다” 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실상을 알리고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후쿠시마 민우 신문 THE FUKUSHIMA MINYU SHIMBUN

위 우측: 맥마이클 교수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훈과 투어 종료 후 공유하고 싶은 지식을 그룹별로 토론하는 학생들.

아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사용할 원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하 원격 제어 기술 개발 센터 (Naraha Center for Remote Control Technology Development)’ 에 방문한 유학생들.